

소통으로 신뢰받는 의회 함께 만드는 행정수도 세종



세종 특별자치시의의회

보도자료

제공일자	2026. 8. 19.(수)	사진 · 영상	사진(○), 영상(×)
보도일자	2026년 8월 19일(수)부터		
담당부서	의회사무처 행정복지전문위원	담당자	박용민 전문위원(044-300-7440)
			김빛나 주무관(044-300-7443)

세종시의의회 행정복지위원회, 장애인 권리보장 및 복지지원체계 개선을 위한 간담회 개최

- 현장 목소리 바탕으로 장애인 정책 실효성 높인다 -

세종특별자치시의의회 행정복지위원회(위원장 김재형)는 19일 오전 10시 30분 시의회 청사 의정실에서 장애인 복지 증진 및 실질적 자립지원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.

이날 간담회에는 행정복지위원회 김재형 위원장, 김명숙 위원, 교육안전위원회 손인수 위원장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, 보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.

주요 논의 과제로는 ▲세종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정책 요구안(장애인 이동권 보장,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행, 지역사회 자립지원 방안 등) 검토 ▲장애인거주시설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등이 제시됐다.

김재형 위원장은 “시의 재정 여건과 복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어려움

에 모두 공감하며, 정해진 예산과 법적 테두리 내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갈 실질적 방안을 모색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”며 “의회 차원에서는 조례 제·개정 등 제도적 지원을 적극 추진하고, 타 부서 협의가 필요한 사항도 별도로 챙기겠다”고 밝혔다.

김명숙 의원은 “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함께 대안을 모색하고, 작은 것부터 개선해야 한다”고 집행부에 당부하며, “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등 신규 사업 역시 예산 부담을 이유로 시작부터 막기 보다는, 적은 인원이라도 우선 시도하며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신중하고 적극적인 고민이 필요하다”고 제안했다.

손인수 위원장은 “장애인 복지 현장의 어려움을 나눌 수 있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한다”며 “오늘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의회 차원의 개선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”고 말했다.

한편, 행정복지위원회는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현장과 소통을 이어가며,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사회 자립 기반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과 정책 대안 마련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.